온 인류를 일시에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자가 구세주

구세주 조희성님

이가 갈리도록 나를 미워해야

이 길은 나라는 의식을 죽이는 길인 고로 누가 나를 미워하면 고소하게 생각을 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순간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마귀를 이겨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도리어 사랑해주고 더욱더 좋아하는 반대생활을 해야 가는 길이지,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거나,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면, 이건 벌써 마귀한테 지는 생활이 되는 고로 마귀 노름에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를 미워하면 상대방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나올 것을 알고 미워하는 것인데,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면 피가 썩고 피가 썩으면 마귀는 자기의 목적이 달성된 고로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누가 나를 미워하면 좋아서 그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깔깔대고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미쳤구나!' '괜히 웃는구나!'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웃음이 나오느냐 하면 내가 나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미워하는 마귀를 이기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고로 껄껄대고 웃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대생활을 해야 이 길을 가는 것이지, 나를 사랑한다든지, 나를 의식한다든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생활한다든지 하면 점점 마귀새끼가 되어가는 것인 고로 결국 그 사람은 무덤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사람은 이가 갈리도록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힘든 일을 할 때에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도리어 쉬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는 것이 이가 갈릴 정도로 미운 고로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미워하게 되면 사람의 생명을 붙잡고 있던 마귀가 떨어지게 되고, 마귀가 들랑날랑하면서 떨어졌을 때 구세주가 그 마귀를 죽이는 것이지, 사람의 생명을 붙잡고 있을 때는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라는 의식의 마귀를 미워하고 반대생활을 해야 마귀가 떨어져 나와 자기가 들어갈 집을 찾게 되는데, 그때에 구세주의 눈에 띄기만 하면 여지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제단은 승리자를 키우는 곳

구세주에게 있어 마귀를 죽이는 일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쉽지만, 사람의 생명을 잡고 있는 마귀가 사람과 같이 죽는 고로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나라는 의식이 사자귀신이라는 걸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이것을 아는 여러분들은 마귀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반대생활을 해야만 마귀가 힘이 없어지는 것이지, 마귀의 뜻과 마귀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면 점점 마귀 신이 강해져서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의 영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죽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점점 강해지면 기력이 약해지는데 기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생명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점점 약해져서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제단에서는 승리자를 키우는 것이지, 착하고 선한 사람을 키우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승리자의 강한 영으로 키워가지고 마귀를 이겨서 구세주가 되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 고로 이 사람이 이긴자 구세주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긴자 구세주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 입장에서 볼 때에 어려운 것이지, 승리자 구세주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처럼 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긴자 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은 성경에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힘든 길'이라고 했듯이 천국 가는 길은 나를 완전히 죽여야 갈 수 있는 길이지, 나를 죽이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세상에 진짜 도(道)라는 것은 나라는 의식을 이기고, 나라는 의식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일어날 적마다 그 생각을 꺾는 생활을 습관적으로 해야 이 길을 갈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하고 가깝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가족관계가 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나와 더불어 싸워서 나를 시간 시간이 이겨야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나를 못 이겨가지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는 것이 진정한 도(道)

이긴자가 되면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내다보이고, 사람의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인지 천당 갈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세주는 전지전능자인 고로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모조리 해결해주고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사람을 볼 때에 보통 사람으로 볼지 몰라도 이 사람은 온 인류를 일시에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들어봤자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이 없는 사람은 다시 마귀가 되어버리는데, 다시 하나님이 될 때에는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죽이고 하나님이 되는 것인 고로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강한 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영이 됐는데 마귀가 그 강한 영을 꺾고 다시 사람이 될 때에는 더 강한 마귀가 되는 고로 그 강한 마귀를 없애버리려면 엄청나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일시에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왜 그걸 안 하느냐 하면 도로 마귀가 될 우려가 있는 고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마귀가 될 때에는 강한 마귀가 되는 고로 그런 사람을 다시 하나님을 만들려면 천 명을 하나님 만들 수 있는 힘을 기울여야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는 고로 이제그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단을 받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만약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면 도리어 고소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힘들어 죽겠다.' 하는 약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 힘들고 괴로울 때에 도리어 고소하게 생각을 하고 웃는다면 마귀가 완전히 KO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도(道)지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중언부언 떠드는 것은 도(道)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싸워서 자신을 완전히 이겨내야 도통했다가 되고 하나님이 되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이겨야

이 사람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긴자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밀실 안에서 이 사람을 유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 청년을 같이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꿈에서 '졌다'로 떨어지는 고로 '야, 내가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마귀한테 지는 거구나!'하는 생각에 마음을 바꿔서 그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할 때에 도리어 그 사람을 더욱더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다음 날에 '이겼다'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계속해서 나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도리어 고소하게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괴수 죄인이야,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물건이야!' 이렇게 나를 학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학대하는 도를 닦아서 올라가는 것이지, 나를 사랑하고 항상 우쭐해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는 자는 마귀새끼요, 마귀 종인 것입니다. 왜 사람이 된 줄 아세요? 그런 성품 때문에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존심을 앞세우고 상대방이 자신을 미워하면 같이 맞대응해서 미워하는 습관이 있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성품인 고로 사람을 마귀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하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해와 이긴자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한 방에서 같이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로구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가식적으로 자기를 사랑한다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척하느냐? 내가 미워하니까 그러는

하단에 계속

구세주의 분신인 이슬성신이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

(이어서)

거지?" 하고 놀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는 가식적인 인간이야."하고 긍정을 하니까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죽게 되었고 결국엔 이 사람이 아니면 죽고 못 사는 입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자 같으면 짝사랑을 한다고 하겠지만 같은 남자인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잠자다가도 나를 껴안고 잤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우니까 비키라고 하면 그때만 비키고 잠든 사이에 또 껴안고 잤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내 속의 마귀가 죽으면

'나를 이기면 세상을 이긴다'고 유교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나를 이기면 모든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긴자가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계속해서 몇 달 동안 반대생활을 100% 하게 되니까 소, 대변으로 마귀의 죽은 시체가 되는 썩은 피가 나오는데 송장 썩은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 피를 쏟는다는 것은 죽은 마귀의 시체가 나온 것인 고로, 이 사람 속에 있는 마귀의 죽은 시체가 쏟아져 나가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긴자가 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십 년 가까이 부르던 이름을 잊어버렸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인정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름을 잊어버린 고로 일주일 동안 매대기를 칠 때에 밀실에서 같이 연단 받는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 볼 수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이름이 뭐든가?' 하고 물어보면 '이런 또라이 봐라' 하고 정신병원에 갖다 집어넣게 되는 고로 물어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사람이 밀실에 들어갈 때에 입고 들어갔던 옷 안주머니를 뒤지게 됐는데 거기에서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고로 내 이름이 조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면서도 너무 거짓말 같아서 이걸 듣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완전히 조희성이가 죽어서 없어지니까 정말 이름까지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해와 이긴자가 소사 신앙촌 집에 갔다 오라고 하시는데, 내 집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어머니가 어디 사시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를 보고 물어, 물어 신앙촌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촌에 들어갔는데 영모님 댁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어른한테 물어보면 '이거 돌았구나!' 하겠지만 아이들은 나를 모르겠지 하는 생각에 'C5동 4호실이 어디냐?'하고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를 보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아이~ 여기잖아요. 아시면서 괜히 물어보셔!"하는데, 여기에 살면서 늘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 왜 물어보느냐는 듯이 대답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도(道)란?

이렇게 이 사람이 완전히 나라는 의식이 없어지니까 내가 살던 집도, 이름도 잊어버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긴자가 됐다는 증거요, 완전히 사람의 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도통이지 말로만 도통했다고 한다고 해서 도통이 아닌 것입니다. 산에서 삼십 년 도를 닦았다고 하는데 삼십 년이 아니라 백 년을 닦았어도 나라는 것이 살아 있으면 도를 닦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라는 것이 없어지면 몸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실체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격암유록에도 '정도령은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다.'라고 씌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도령은 인간의 탈을 벗은 사람인 고로 인간의 성품이 없는 고로 만약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동안 보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을 지긋지긋하게 미워했던 고로 이 사람이 인간에게 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 말은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겐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야겠다는 마음이 불붙고 있는 고로 구원을 하려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보고 싶다든지 동정한다든지 이런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고로 그런 인간의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살리고자하는 마음뿐이지, 다른 인간적인 감정은 없는 고로 화를 낼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별의별 말을 다해도 화가 나질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 같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인 고로 이슬성신을 내리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긴자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는 소리는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 내린다는 의미인 고로 구세주 하나님의 분신이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세주의 분신인 이슬성신이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고로 구세주가 오기 전에는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성신을 받았다고 기성교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성령의 불이 아니고 마귀의 불인 것입니다.

나를 미워해야 이긴자가 되고 도통을 할 수 있어

은혜라는 것은 구세주만이 은혜를 내릴 수 있는 것인 고로, 구세주의 분신이 은혜가 되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게 되는데, 인간의 죄를 해결한다는 건 인간 속에 있는 마귀를 죽여서 완전히 전멸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구세주가 나와야 은혜가 내리는 것이지 그전에는 은혜가 내린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세주가 말씀하는 대로 해야 이긴자가 되고 도통을 하는 것이지, 결코 나라는 주체의식을 사랑해가지고는 도통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미워한다는 것은 누가 나를 미워하면 같이 나를 미워하고 고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 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미워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나라는 주체의식이 점점 약해져서 생명을 붙잡고 있었던 마귀가 사람의 생명을 놓고 자기가 있어야 할 거처를 찾아다니게 되는데, 그때에 온 우주에 꽉 차게 있는 구세주의 눈에 띄었다 하면 그 자리에서 소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철천지원수 중에 원수인 까닭은 6000년간 우리의 조상을 대대로 죽인 원수가 바로 나라는 의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라는 실체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량대수 마귀 일초 동안에 무량대수 횟수로 계속해서 뿌리째 뽑아서 성령의 검으로 난도질하여, 성령의 도끼로 짓이겨서, 성령의 맷돌로 갈아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유황불로 박멸소탕'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기도문을 외운 녹음테이프가 우리제단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야소가 병원에서 다 죽어가는 할머니의 귀에다 이어폰을 끼워서 이 기도문 테이프를 밤새도록 듣게 했더니 다 죽어가던 할머니가 막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귀 죽이는 이 기도문을 듣기만 들으면 어떤 사람 속에 있는 마귀도 다 죽게 되어 있는 고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주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마귀를 죽이는 기도인 고로 집집마다 기도문 테이프를 비치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병이 들어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기도테이프를 밤새도록 듣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약을 안 먹어도 죽을병이 나아버리는 것입니다. 병이라는 건 마귀가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죽어버리면 병이 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병원에 간다, 어쩐다 하는 걸 보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그렇게 모를까? 하고 한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4면 상단에 계속